

영화관람 '1만원 시대'...치킨은 배달료 부과

최저임금 인상·원자재값 상승에 물가인상 전방위 확산 짜장면·과자·음료 상승...택시·버스 등 공공요금도 불안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값 가격 상승 등으로 촉발된 가격인상 여파가 외식·식품가격은 물론, 영화관람비 등까지 줄줄이 확산하면서 생활물가가 들쭉이 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교통비와 지방공공요금 등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서 물가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서비스 이용료 확산**...먹거리 가격 무섭다= 대표적인 간식이자 야식인 치킨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1건당 2000원의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메뉴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대부분 치킨은 배달주문이 많아 사실상 가격인상이라고 풀이된다.

이처럼 교촌치킨이 배달서비스 유료화에 나서면서 업계 2, 3위 업체인 bhcn나 BBQ도 배달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 일반 업소들도 배달 유료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중국음식과 야식 등 광주의 일부 외식업소들은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할 경우 1000~2000원의 배달료를 따로 받고 있는 추세다.

피자업계 1위인 도미노피자의 경우엔 6일부터 피자 라지(L) 사이즈는 1000원, 미디엄(M) 사이즈는 500원 인상하고, 앞서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배달 최소 결제 금액을 올렸다.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외식업체들도 가격을 올린 곳이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인상 폭은 더 크다.

앞서 롯데리아, KFC,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등 버거 브랜드를 비롯해 커피빈,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신전떡볶이, 이삭토스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여기에 지역 중소기업자들도 짜장면이나 국밥 등의 가격을 500~1000원씩 올

리거나, 일부는 소주를 기존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려받는 곳도 있다.

이외 식품에서는 롯데제과가 빼빼로와 목캔디 가격을 14.3~25% 인상했고, 코카콜라, 광동제약 비타500, CJ헬스케어 컨디션도 가격이 올랐다. CJ제일제당은 냉동만두, 즉석밥, 햄, 어묵 등의 가격을 올렸다. 사조대림과 동원F&B도 어묵가격을 인상했다.

◇**영화 한편에 1만원?**~지방선거 후 공공요금 인상 우려도=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도 오는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000원 올리기로 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드 좌석 기준 9000원이던 일반 2D 영화관람료가 1만원으로 오른다.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 관람료는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젠 영화 한편도 1만원을 줘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대중교통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공요

금 안정세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의 경우 5년째 동결 중인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지하철 요금 인상도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이 여파가 광주·전남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중인데다, 다른 지자체들도 선거철 미뤄뒀던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공공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반발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먹거리 가격 상승과 대중교통비 인상은 식료품비와 대중교통에 대한 소비 지출이 많은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물가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물가가 오른 무·쌀·수산물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제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비는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가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증권 '배달사고' 후폭풍

전산착오로 자사주 지급...직원들 매매해 추가 급락 사태

도덕적 해이 질타 못뭏...금감원, 피해보상 요청·시스템 점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를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추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배당받은 주식은 571만주에 달했다. 주가는 배당 착오로 오전 한때 11.68% 급락했고 변동성완화장치(VI)가 여러 차례 발동했다.

증권사 안팎에서는 고액 돈을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금감원도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당기 된 셈이다. 전날 증가 기준으로 한다면 112조698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했지만 일부 직원은 배당받은 주식을 급히 팔아치웠다. 실제로 매도가 체결된 물량은 잘못 입력된 주식의 0.18% 수준인 501만2000주였다.

이 때문에 주식 거래량이 2073만주(전날 거래량의 40.7배)에 달했고 삼성증권 창구에서 571만주의 매도가 이뤄졌다. 주가는 배당 착오로 오전 한때 11.68% 급락했고 변동성완화장치(VI)가 여러 차례 발동했다.

증권사 안팎에서는 고액 돈을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금감원도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홍소핑 입점 지원 상담회

중기중앙회 참가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TV홍소핑 입점 지원을 위한 MD상담회'의 참가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품목은 홍소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재 위주로, 방송시연을 통해 상품의 특징, 성능, 효능 등 설명이 가능한 상품이다. 다만, 과거 중기중앙회 홍소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업체는 참여가 제한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MD상담회 참가대상 업체를 선발하고, 상담회 이후에는 최종 28개의 업체를 선정해 홍소핑 방송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MD상담회는 ㈜홍앤소핑과 함께 오는 5월 15일과 16일 개최한다.

신청된 업체는 ㈜홍앤소핑에서 방송제작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며, 업체는 카드수수료, 폴센터 관련 비용 등 판매직접비만 부담한다. 판매직접비는 통상 판매액의 8% 내외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5일까지며,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입점희망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biz1472@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홍앤소핑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130여개사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방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건강을 섭취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장성 분향 찹 토마토를 100g당 1200원에 선보이고 있다. 분향 찹 토마토는 속이 짙 차고, 작고 단단한 게 특징이다. <롯데쇼핑 제공>

금호타이어 본격 매각 절차

신주인수계약...더블스타, 지분 45% 보유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와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와 채권단은 지난 6일 중국 더블스타와 신주인수 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했다. 더블스타는 주당 5000원씩 6463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억2926만7129주(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앞서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은 더블스타의

이같은 내용의 투자유지 조건을 승인한 바 있다.

더블스타의 투자조건에는 ▲3년간 고공보장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채권단) 투입 ▲더블스타는 3년, 채권단은 5년간 매각 제한(채권단은 4년차부터 매년 50%씩 팔 수 있다) ▲더블스타는 5년이 지날 때까지,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최대주주 지위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메비우스 슈퍼슬림 1mg' 출시

JTI코리아

JTI코리아는 담배 브랜드 메비우스(MEVIUS)의 '메비우스 슈퍼슬림 1mg <사진>'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메비우스 슈퍼슬림 1mg'은 메비우스 고유의 시그니처 블렌딩과 기술력으로 부드러운 맛과 최상급 품질을 유지하면서 슈퍼슬림 타입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1mg 제품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의 '메비우스 슈퍼슬림 1mg'의 소비자 가격은 4500원(타르/니코틴 : 1mg/0.1mg)으로, 전국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JTI코리아 마케팅 담당자는 "슈퍼슬림 제품군 성장에 따라 '메비우스 슈퍼슬림 1mg'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지난해 4월 출시된 '메비우스 ISS V1 슈퍼슬림'과 슈퍼슬림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TI는 메비우스(마일드세븐), 카멜, 윈스턴과 LD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메비우스는 미주, 아프리카, 유럽에서 선별된 최상의 담배잎을 사용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또복권		(제80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7	25	28	37
43	44	44	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56,786,657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9,000,959	51
3	5개 숫자일치	1,505,278	1,999
4	4개 숫자일치	50,000	97,006
5	3개 숫자일치	5,000	1,618,94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